

복된 길을 지키는 지혜와 분별력

잠언 2:6-11

신앙은 혼자 가질 수 있지만 신앙 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신앙을 싹트고 있고 배울 수 있지만, 신앙의 성장과 관련된 신앙 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혜의 관계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를 갈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는 지혜를 얻어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순환 과정이 반복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정의롭고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을 보호하시고, 이미 가고 있던 언약 백성의 길을 더 깊이 깨달을 것을 말합니다. 복된 길을 걸어왔음에도 복된 길을 더 잘 알게 되어 지혜와 하나님을 많이 반복되어 강화됩니다. 이렇게 작은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이 언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믿음으로 연결시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과 은혜를 일상 생활에 연결시키고 실천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알려주신 복음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대로, 우리의 역량만큼 공평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우리의 지혜는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실천하고 은사만큼 섬기면서 성장하는 기독교인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